

역대급 외야 전쟁 후 1년, 올해는 '포수 대전'

양익지 비롯해 유강남·박동원 등 FA 자격 얻어
지난해 외야수 대이동 이어 올해 포수 대이동 예고

'역대급' 외야 영입전에 이어 올해는 포수 전쟁이다. 소리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2023 프리에이전트(FA) 자격 선수 명단 40명을 공시했다. 이중 현역 은퇴 선수 의사를 밝힌 선수들과 이미 원 소속팀과 다년 계약을 맺은 선수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FA는 30명 안팎이다. 단연 돋보이는 이름은 KBO리그 최고의 포수로 꼽히는 양익지(NC 다이노스)다. 2019시즌을 앞두고 NC와 125억원의 대형 계약을 맺은 양익지는 꾸준한 기량을 선보이며 여전히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FA 재자격 선수인 양익지가 B등급으로 분류되면서, 양익지를 데려가는 구단은 직전 연봉의 100%와 보호선수 25명 외 선수 1명 또는 전년도 연봉의 200%만 NC에 건넨다. 직전 연도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 20명 외 선수 1명 또는 전년도 연봉의 300%를 내야 하는 A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도 낮다. 양익지를 원하는 팀들의 이렇듯 계속 언급

되고 있다. 양익지의 거취는 포수 대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 겨울 FA 시장에는 양익지 외에도 유강남(LG 트윈스), 박동원(KIA 타이거즈), 박세혁(두산 베어스), 이재원(SSG 랜더스) 등 포수가 줄줄이 나와있다. 이들 모두 팀 내에서 주전 마스크를 쓰는 이들이다. 공격과 수비도 두루 갖췄고 있다. 양익지 영입전에서 탈락한 팀들은 차선책으로 이들에게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리그를 대표하는 외야수들이 대거 시장에서 나온 지난해에도 '외야수 대이동'이 벌어졌다. 지난 스토브리그는 역대급으로 뜨거웠다. 100억이 넘는 계약만 5건이 쏟아지면서 15명 FA 선수 계약 총액이 역대 최고인 989억원에 달했다. 그 중심에는 외야수가 있었다. 지난해 이적생만 6명이었는데 그 중 외야수가 4명이었다. 삼성 라이온즈에서 LG로 이적한 박해민(4년 60억원)이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양익지

유강남

박동원

NC의 장단 멤버였던 나성범은 6년 150억원의 대형 계약을 맺고 KIA 타이거즈로 떠났고, 나성범을 잃은 NC는 박건우(6년 100억원), 손아섭(4년 64억원)을 영입하면서 외야를 재정비했다. 팀에 잔류한 외야수들도 톱특히 대우를 받았다. 두산에 남은 김재환은 4년 115억원, LG에 잔류한 김현수는 4+2년 115억원에 사인했다. 올해는 몇 명의 포수가 유니폼을 갈아입을

지에 벌써부터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FA 자격 선수는 15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KBO는 16일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할 예정이다. FA 승인 선수는 공시 다음날인 17일부터 해외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선수 계약을 위한 교섭이 가능하다. 예열은 끝났다. 달아오른 FA 시장이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김정환, 구본길(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 오상욱(대전광역시청), 도경동(대구광역시청)이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13일(현지시간) 알제리 알제에서 열린 2022~2023 국제펜싱연맹(FIE) 국제월드컵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사진=대한펜싱협회 제공)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FIE 국제월드컵 단체전 우승차지 여자 사브르, 동메달

'펜싱 코리아'의 위업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김정환, 구본길(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 오상욱(대전광역시청), 도경동(대구광역시청)으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13일(현지시간) 알제리 알제에서 열린 2022~2023 국제펜싱연맹(FIE) 국제월드컵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16강에서 스페인을 45-17로 물리친 한국은 8강에서 일본을 45-31로 꺾고, 4강에서 프랑스를 45-19로 제압했다. 결승전에서는 이란을 45-34로 무찌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윤지수, 홍하은(이상 서울특별시청), 전은혜(대전광역시청), 최세민(전남도청)이 나선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동메달을 수확했다. 이날 스위스 베른에서 벌어진 남자 에페 월드컵대회에서도 한국은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원준, 전병찬(이상 익산시청), 마세건(부산광역시청), 김대인(광주광역시서구청)으로 구성된 남자 에페 대표팀은 8강에서 일본을 만나 31-30, 신승을 거뒀다. 4강에서는 이탈리아를 45-36로 눌렀다. 결승에서 프랑스에 41-45로 아쉽게 패하며 은메달을 손에 넣었다.



KLPGA 평정한 박민지, 한국 무대가 좁다 2년 동안 12승 수확 한국 여자 골프 최강자

박민지(24)에게 한국 무대는 좁다. 박민지는 지난 13일 강원 춘천 라비에베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2022시즌 최종전인 SK윌더스-SK텔레콤 챔피언십 2022(총상금 10억원·우승 상금 2억원) 최종 3라운드에서 최종합계 9언더파 207타로 정상에 올랐다. 2시즌 연속 6승을 달성한 박민지는 통산 16승을 수확한 현역 선수 최다승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박민지는 올해 기록을 보이며 아쉽게 대상은 놓쳤다. 하지만 2시즌 연속 6승이라는 성과를 냈고, 다승, 상금 부문 1위에 올랐다. "전성기가 맞는지 같다. 나도 왜 이렇게까지 우승을 많이 하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 숫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안이 병병하다. 내가 봐도 대단하다고 생각된다. 또,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더 기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고 훈련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민지는 올해 22개 대회에 출전했다. 톱10에 12차례 올라 6번의 우승을 거머쥐었다. 티샷부터 아이언, 쇼트게임, 퍼트까지 거의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박민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멘탈도 강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박민지의 유일한 단점은 기록이다. 자신이 가진 실력에 비해 쉽게 무너질 때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박민지가 LPGA 투어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박민지는 "해외에서도 우승을 꼭 해보고 싶다. 그런 것들이 동기부여도 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암군민속씨름단,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모래판 제패

최정만 금강장사·차민수 한라장사 타이틀 거머쥐며 씨름 최강 구단 입증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지난 11월 7일부터 13



일까지 열린 '2022 천하장사 씨름대축제'에서

금강장사, 한라장사 타이틀을 거머쥐며 씨름의 최강 구단임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최근 열린 추석장사씨름대회 3체급 석권에 이어 안산김홍도장사씨름대회 3체급 장사 배출과 단체전 우승에 이어 올해 마지막 대회까지 제패하며, 올해만 무려 19개(장사 13회, 전국체전 금메달 2개, 단체전 4회)의 우승 타이틀을 따내는 타이추종을 불허하는 성적을 기록했다. 대회 넷째 날인 10일 열린 한라장사 결정전에서는 올해 영암군민속씨름단에 입단한 차민수 장사가 8강에서 최정훈(태안군청)을 2-0으로 가볍게 이긴 데 이어, 4강에서는 강력한 우승후보인 팀 동료 오창목을 2-1로 제압했다. 마지막 결승에서는 점점이 예상됐던 신홍강자 김무호(울주군청)를 3-0으로 가볍게 꺾으

며 올해만 세 번째 황소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다음날 치러진 금강장사 결정전에서는 최정만 장사가 8강과 4강에서 각각 이철빈(태안군청)과 문형석(수원특례시청)을 2-0으로 제압하며 결승에 진출, 최근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는 김민정(영월군청)까지 3-0으로 가볍게 누르면서 금강장사 꽃가마에 올랐다. 이로써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총 62회 우승(장사 51회, 전국체전 금메달 4개, 단체전 7회)이라는 새로운 금자탑을 세우면서, 내년 1월 영암에서 열리는 설날장사씨름대회를 비롯한 각종 씨름대회에서 전방을 밝게 했다. 영암군민속씨름단 김기태 감독은 "올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무척 기쁘고, 열심히 뛰 어준 선수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광상 한마음으로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영암군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화려한 은퇴' 이대호 일구대상 수상 최고타자 이정후·투수상 고우석

한국 프로야구 OB 모임인 사단법인 일구회(회장 김광수)는 '2022 뉴트리티데이 일구상' 수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일구대상(롯데 자이언츠 이대호)에 이어 9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대호는 올해 타율 0.331에 23홈런 101타점을 올리는 등 화려한 은퇴 시즌을 보내 일구대상에 선정됐다. 관심을 모은 최고 타자상은 지난해에 이어 키움 히어로즈 이정후가 통산 3번째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최고 투수상은 세이브왕에 오른 LG 트윈스 고우석에게 돌아갔다. 이정후는 타격 5관왕(타율·최다안타·타점·장타율·출루율)에 오르는 등 압도적인 시즌을 보내며 키움을 한국시리즈까지 진출시킨 일등공신이다. 고우석은 역대 8번째로 40세이브 고지를 돌파했으며, 42세이브는 2000년 진필중과 함께 역대 한 시즌 최다 세이브 공중 5위에 해당한다. 위지노력상은 SSG 랜더스의 노경은이, 신인상은 두산 베어스 정철원이 선정됐다. 롯데에서 방출의 아픔을 겪은 노경은은 SSG에서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8년 만에 두자릿수 승리(12승)를 올렸다. 두산 정철원은 2018년에 입단한 뒤 올해 KBO리그에 데뷔해 신인 역대 최다인 23홀드를 기록하는 등 두산 불펜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한국 야구계에 뜻깊은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특별 공로상에는 박준준 안양대 총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박준준 총장은 프로야구 선수를 거쳐 단

장을 역임한 뒤 우석대 교수를 거쳐 2020년부터 안양대 총장을 맡고 있다. 프로 운동선수 출신으로는 첫 대학 총장에 올라 야구인의 위상을 높인 점을 높이 샀다. 프로 지도자상은 삼미 박치양 감독이 받았고, 아마 지도자상은 대전고 김의수 감독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박치양 감독은 체계적인 관리와 우수한 지도력으로 무수히 많은 퓨처스타를 KBO리거로 탈바꿈시킨 지도력을 높이 샀다. 김의수 감독은 오랜 아마 지도자 생활 속에서 올해 팀을 28년 만에 전국대회(대통령배) 정상에 이끌었다. 또 신인 드래프트에서도 5명이 프로 지명을 받아, 성적과 함께 선수 육성에 성공한 사례로 손꼽힌다. 프런티어상은 SSG 류성규 단장에게 돌아갔다. 올해 SSG가 정규리그 개막부터 단 한 번도 1위를 뺏기지 않는 '와이어 투 와이어'로 직행한 뒤 한국시리즈를 제패한 데는 선수단은 물론이고 프런트의 뒷받침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특히 과감한 외국인 선수 교체나 트레이드 등을 통해 팀 전력을 보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판상에는 2002년부터 필드의 포칭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오훈규 심판위원이 받았다. 2022 뉴트리티데이 일구상 시상식은 오는 12월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리베라호텔 3층 베르사이유홀에서 진행되며 IB 스포츠 채널과 네이버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곡성서 전남도지사배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성료 전국 800여 선수단 참여 속 무사고...산림스포츠 활성화 기반

전남도와 곡성군이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13일 곡성 오곡면과 고달면 일대에서 개최한 '제2회 전남도지사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에 전국 8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전남도와 곡성군이 주최하고, 곡성군 체육회와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이 주관했다. 종목은 산속 비포장길을 달리는 크로스컨트리(36km) 주니어부·여자부와 초급·중급·고급부 등 13개 등급, 시골길을 달리는 라이딩으로 나눠 진행됐다. 그동안 선수 모집을 위해 지난 9월부터 한국산악자전거연맹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아 각 분야별 선수 총 800여 명이 참가했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곡성군에서 사용 가능한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하고, 우수 선수에게는 39개의 메달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했다. 곡성군에서는 선수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위험 구간 곳곳에 경찰, 보건, 의

곡성=양해영 기자